



옛 임피역 → 등록문화재 208호



옛 조선은행 → 근대건축관



옛 일본 제18은행 → 근대미술관

군산으로 100년 전 시간여행 떠나세요

군산시 '근대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일제 유물 간직한 구도심 관광자원화

한때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군산의 근대문화유산이 자치단체의 도시 재생사업으로 부활하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2009년부터 근대 문화 중심도시의 위상과 옛 도심의 부활을 목표로 '근대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군산 내항을 중심으로 한 근대문화 벨트지역과 함께 문화유산들을 보존해 '스토리' 있는 근대 역사경관지역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이다. 군산의 옛 도심은 1899년 6월 조

계지(외국인 거주지역)로 설정되고서 일제가 쌀 수출의 거점기지로 삼아 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조선은행, 일본 제18은행, 군산세관, 일본식 사찰인 동국사 등 170여 채의 근대 문화유산이 밀집돼 있다. 시는 총사업비 182억원을 투입해 2011년 9월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을 개관했다. 옛 도심인 장미동에 들어선 역사박물관은 지하 1층·지상 4층(넓이 4248㎡) 규모로 지어졌다. 유물은 4000여 점에 이르고 이 가운데 단체와 시민, 학생이 기증한 유물도 2250여 점이 넘는다. 개관 2년반 만에 55만 명이 다녀갔다. 시는 다른 근대문화유산들도 지난해 2009년부터 문화벨트 지역으로 묶어 새로 단장하고 있다. 내항 일원의 근대역사 벨트화 권역에는 진포 해양테마공원, 근대건축관, 근대미술관, 장미(藏米) 공영

장, 장미(藏米) 갤러리 등이 조성됐다. 월명동 일대에는 시대형 숙박시설 6동, 근린생활시설 10동, 교육관 등을 조성하는 '근대역사경관 조성사업'을 비롯해 건축물 일편과 간판을 근대 풍으로 조성하는 탐방로(740m) 조성과 '1930 근대 군산 시간여행 사업'이 추진 중이다. 사업에는 내년까지 654억 원이 투자된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단신

전북 기능경기대회 다음달 9일 개막

기능인들의 잔치인 전북 기능경기대회가 4월 9~14일 전주공고 등 도내 8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또 지역특성화 직종으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와 한지공예 분야 경기가 별도로 개최된다. 이번 대회 입상자들은 오는 10월 경기도에서 열리는 제49회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전북 대표로 출전한다. /전주·부안=김철수기자 knews@

지리산 뱀사골 등 야영장 4곳 개방

지리산 국립공원 북부사무소는 4월6일부터 달궁과 덕동자동차 야영장 등 4곳을 개방한다. 야영장 4곳 중 덕동자동차 야영장, 뱀사골야영장, 달궁 자동차야영장 일부는 예약제로 운영되며, 나머지는 선착순 현장이용이 가능하다. 예약통합시스템(reservation.knps.or.kr)을 통해 4월 1일 오후 2시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 관리공단 홈페이지(knps.or.kr)나 지리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063-630-89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대상 후보자 접수

정읍시는 4월 9일까지 '제4회 동학농민혁명 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추천 방법은 정읍시 홈페이지(www.jeongeup.go.kr)에서 추천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 관광산업과 동학농민혁명 선양팀에 대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추천서·공적조서·공적 개요서·공적 증빙자료 사본·주민등록 등본 등 각 1부이다. 시상식은 5월 11일 제47회 향토현 동학농민혁명 기념제에서 열린다. (문의 063-539-5431)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남원시 '차 없는 거리' 조성

용남시장~김진수 소아과

남원시가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 구도심 내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 시는 지난 2012년 안전행정부 주관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국비 10억원·시비 10억원)를 확보, 최근 2015년 상반기 완공 목표로 '차 없는 거리' 조성사업에 착수했다.

■ 위치도



남원시내에서 처음으로 조성되는 보행자 전용 도로 사업구간은 구도심내 용남시장 ~ 구군청 ~ 김진수 소아과 앞까지 총 620m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광한루원 ~ 구군청 ~ 용남시장 ~ 김진수 소아과까지 '예가람길(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앞서 시는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2월에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 추진위원단을 구성한 후 올 2월에 차 없는 거리와 문화예술의 거리가 활성화돼 정주와 대전을 견학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고창 '독립운동 파리장서' 기념비 건립

새마을공원 내 위치

일제강점기인 1919년 유림(儒林)이 파리 만국 평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보낸 것을 기리는 '한국유림 독립운동 파리장서(長書) 기념비'가 고창군 새마을공원에 세워졌다. 기념비에는 유림 137명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주장한 청원서 취지문과 청원서에 서명한 고창 출신의 고석진·고예진·고순진·고제만 지사를 추모하는 내용이 새겨졌다. '파리장서 독립운동'은 1919년 1월부터 파리 베르사유궁전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한국 유림대표 137인이 서명한 한국독립을 청원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비밀리에 보낸 역사적인 사건이다. 유림의 독립청원서는 만국평화회의의 대표단, 중국의 각국 외교사절 등에 배포돼 독립의지를 고취시키고 일본 식민통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등 큰 반향을 일으켰다. /고창=윤창영기자 cy0370@



한국 유림독립운동 파리장서추진위원회는 지난 29일 고창군 새마을공원에 '한국유림 독립운동 파리장서' 기념비를 건립했다. <고창군 제공>

순창 노인복지센터, 도 최우수기관 선정

보건복지부 주관의 '2013 사회서비스 사업 품질평가'에서 순창 노인복지센터(센터장 권명자)가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순창 지역 자활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군 노인 복지센터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노인 돌봄 바우처 기관으로 선정돼 2013년까지 6년 동안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정읍 기초질서 캠페인 정읍경찰서(서장 김동봉)와 정읍시, 시의회, 교육지원청, 소방서는 합동으로 최근 정읍역앞에서 교통법규·기초질서 준수 생활화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kwangju.co.kr

www.kjhr.com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대한민국, 미국, 독일, 덴마크, 캐나다, 스웨덴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SINCE 1989

이태리 가구 전문점

NAVER **홍스페이스**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1899-0240